

간과 골전이를 동반한 항문·직장 악성흑색종 1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박성욱*, 오일환·우영석·이철종·박정운·박태호·김재석·김효진

항문·직장의 원발성 악성 흑색종은 드문 종양으로 전체 악성 흑색종중에서의 1.6%를 차지하며, 모든 악성 항문 직장암의 0.25%에서 발생한다. 악성흑색종의 호발부위는 피부, 눈, 항문·직장의 순이다. 예후는 아주 불량하며 평균 생존기간은 진단후 약 9개월 정도이다. 임상적으로 항문 출혈이 주소이고 통증이 있을수 있어 진단 초기에 치핵 또는 용종으로 오진되는 비율이 80%이상이다.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 인자로는 종양의 두께와 임파절의 전이 여부로 특히 진단 당시 서혜부 임파선의 존재는 항상 치명적이다. 연자들은 간 및 골 전이된 항문·직장 악성흑색종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 41세 여자환자가 우상복부 동통과 소화불량을 주소로 개인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상 간내 거대 종양이 있어서 내원하였다. 배변후의 출혈은 간헐적으로 관찰되었으며 점차 심해지는 경도의 변비가 있었고 배변은 불규칙하였다. 항문 수지검사와 S상결장경 검사상 항문환에서 상방 2cm 부터 8cm까지 용종형 내지 용기형으로 직장을 에워싸는 형태의 쉽게 출혈하는 종양이 관찰되었고 우측 서혜부 임파절이 촉진 되었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간우엽 전체를 차지하고 다수의 파생성 병소를 가지는 거대 종양이 관찰되었다. 골반 전산화 단층 촬영상 조영제에 의해 조영되는 두꺼워진 직장벽과 자궁을 직접 침범한 소견이 보였고 우측 서혜부 임파절 종대가 관찰되었다. 골 동위원소 검사상 다발성 두개골 전이와 우측 대퇴골 전이 소견을 보였다. 혈액 검사상 CEA 3ng/ml 이하, α FP 5ng/ml 이하였다. 산부인과와 안과, 피부과 검사상에서는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간 조직 검사상 짙은 녹색의 과립모양의 색소를 가진 비전형적인 부추형세포의 중심이 관찰되었다. 직장 조직 검사상 비전형적인 종양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었으며 상기 두가지 조직 모두에서 S-100, HMB-45, Vimentin에 양성반응을 보여 악성 흑색종으로 진단하였다. 간과 골 전이, 직장의 인접장기 침범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는 시행하지 못하고 2회의 항암화학요법(DTIC: 250mg/m²/day x 5days)과 간전이 병소에 대한 방사선치료 및 온열치료를 시행하였고 골전이 병소에 대해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다. 치료경과 판정상 안전병변으로 판단되어 보존적 치료중 진단 4개월뒤에 뇌전으로 사망하였다.

복합항암화학요법으로 완전반응을 얻은 원발성 심장 혼합육종(Myxosarcoma) 1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광진*, 양두경, 이수훈, 문창훈, 김성현, 김재석, 김효진

심장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종양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부검시 0.002% 내지 0.03% 정도이며 그 중 75%가 양성 종양으로 양성 종양의 절반이 혼합종(myxoma)이다. 약 25%를 차지하는 악성 종양으로는 대부분 육종으로서 그 중 혼합육종은 약 6% 내지 8%를 차지하고 있다. 혼합육종은 심내막 내에 있는 미분화성 혹은 배아성 잔존물에서 유래하며 심장에서 발생하는 다른 원발성 악성 종양과 같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므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및 심장이식 등 어떤 방식의 치료로도 완치가 어려워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 국내에서는 보고된례가 없고, 몇몇 보고된 외국의 중례들도 항암화학요법으로 양호한 치료 효과를 보고한 바 없다. 이에 연자들은 복합항암화학요법으로 완전반응을 얻은 뇌 및 인부조직에 전이된 원발성 심장 혼합육종 1례를 보고한다.

중례 ; 21세 남자로 노작성 호흡곤란, 심계항진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에서 청진상 개방성 탄발음이 들렸다. 심초음파도에서 좌심방에 종괴가 관찰되어 종괴 절제술 후 조직검사상 7×5cm 크기의 혼합육종으로 진단되었다. 6개월 후 다시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오른쪽 후두엽부위에 거대 종괴가 보여 개두술 및 종괴절제술 후 혼합육종으로 확인되었고 수술 후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다. 2개월 후에 왼쪽 대퇴부에 종괴가 촉진되어 검사한 대퇴부 자기공명영상에서 대뇌전근 및 반힘줄모양근에 각각 7×10cm 및 3×3cm 크기의 종괴가 보여 광범위 절제 후 조직검사상 전이성 혼합육종으로 확인되었다. 1개월 후 다시 동일 부위에 종괴가 재발하여 4회의 복합항암화학요법(VIP regimen : VP-16, Ifosfamide, Cisplatin)을 시행하였고 이후 촬영한 대퇴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완전반응을 보였고 총 8회의 복합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7개월간 완전반응이 유지되고 있다.